

일본의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복지 정책 대응 관계에 대 한 전문가 자문 및 공동연구진과 의 세미나 개최

2018. 1.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일본의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복지 정책 대응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공동연구진과의 세미나 개최

과제명

- 일본의 경제·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복지 대응 정책 분석

출장기간

- 2018.12.11.(화)~2018.12.15.(토) (4박 5일)

출장지역

- 일본 도쿄

출장자

- 조성호 부연구위원

일정요약

일자	국가/지역	방문기관/면담자	주요 논의사항, 습득사항
2018.12.11. (화)	일본 도쿄	오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Suga Keita 박사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2018.12.12. (수)	일본 도쿄	오전: 게이오대학/Tsuya Noriko 교수 오후: 도쿄통신대/Masuda Masanobu 교수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및 일본의 정책 형성 과정
2018.12.13. (목)	일본 도쿄	오전: 도쿄 대학/Genda Yuji 교수 오후: 오비린 대학/배지혜 교수	일본의 경할인구 추이 및 사회 현상
2018.12.14. (금)	일본 도쿄	오전: 주쿄대학/Matsuda Shikeki 교수 오후: 테이쿄 대학/Yukawa Shiho 교수, Watanabe Yuichi 박사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세미나 개최
2018.12.15. (토)	한국 서울	-	

2 세부 내용

현재 과제 진행 중인 관계로
본 문서내용의 인용을 금지함

1. 인구구조 변화

□ 연령별 비율

- 한국과 일본의 유소년인구(15세 미만) 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자(65세 이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비율은 일본이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비율 추이: 1990~2015년

(단위: %)

한국				일본			
연도	15세 미만	15~64세 미만	65세 이상	연도	15세 미만	15~64세 미만	65세 이상
1990	25.7	69.4	5.0	1990	18.3	69.6	12.1
1995	23.0	71.1	5.9	1995	15.9	69.5	14.5
2000	21.0	71.7	7.3	2000	14.6	68.0	17.4
2005	19.1	71.6	9.3	2005	13.8	66.0	20.2
2010	16.2	72.5	11.3	2010	13.1	63.8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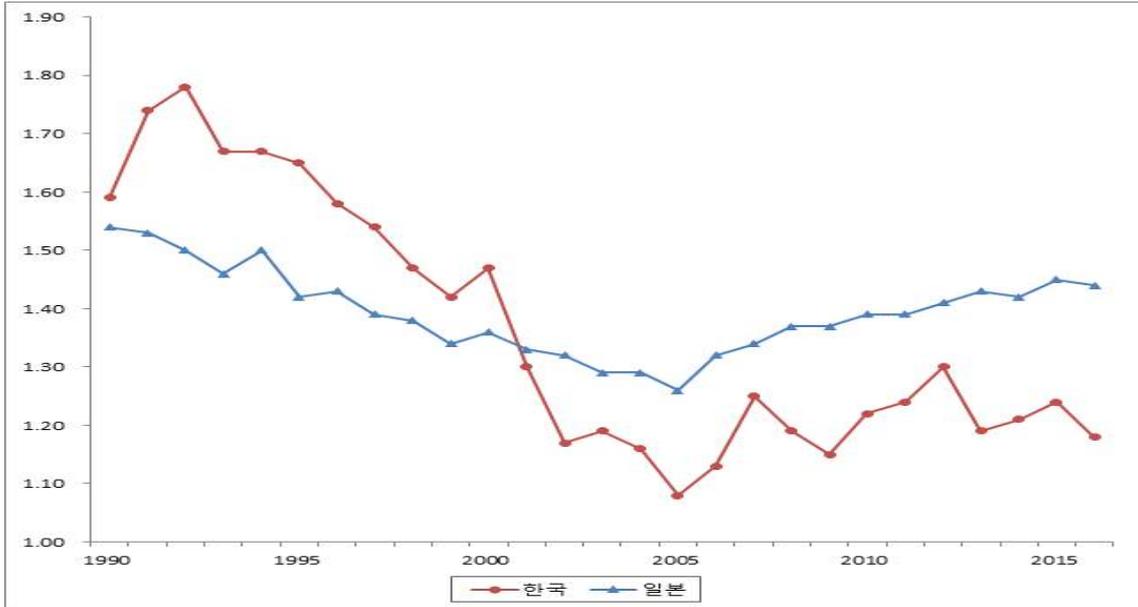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2018」

□ 합계출산율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1년부터 일본보다 낮아지게 되고(한국: 1.30, 일본: 1.33),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
 - 특히, 2013년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2016년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18, 일본이 1.44로 0.26 차이가 나고 있음
 - 일본은 2010년 이후로 1.4를 중심으로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안정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1990~2016년

(단위: 명)



자료: 한국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2018」

○ 출생아수

- 한국과 일본의 출생아수는 1990년 대략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한국의 감소세가 더욱 커져서 2016년에는 일본의 출생아수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남
- 즉, 한국의 출생아수 감소 속도가 일본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함

<표 1> 한국과 일본의 출생아수 추이: 1990~2017년

(단위: 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990	649,738	1,221,585	2004	472,761	1,110,721
1991	709,275	1,223,245	2005	435,031	1,062,530
1992	730,678	1,208,989	2006	448,153	1,092,674
1993	715,826	1,188,282	2007	493,189	1,089,818
1994	721,185	1,238,328	2008	465,892	1,091,156
1995	715,020	1,187,064	2009	444,849	1,070,035
1996	691,226	1,206,555	2010	470,171	1,071,304
1997	668,344	1,191,665	2011	471,265	1,050,806
1998	634,790	1,203,147	2012	484,550	1,037,231
1999	614,233	1,177,669	2013	436,455	1,029,816
2000	634,501	1,190,547	2014	435,435	1,003,539
2001	554,895	1,170,662	2015	438,420	1,005,677
2002	492,111	1,153,855	2016	406,243	976,978
2003	490,543	1,123,610	2017	357,771	

자료: 한국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2018」

□ 미혼율

- (남성 미혼율) 2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본 남성의 미혼율이 한국보다 높았으나, 2000년에는 20대 후반(한국: 71.0%, 일본: 69.4%), 30대 초반은 2010년에 일본보다 높아 지고(한국: 50.2%, 일본: 47.3%), 30대 후반은 2015년에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함(한국: 33.0%, 일본: 35.2%)
 -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0년 인구조사 결과에서는 30대 후반도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표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1990년 20대 후반의 미혼율은 일본의 1980년 정도와 유사하고(한국: 57.3%, 일본: 55.1%), 30대 초반은 1975년 중반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한국: 13.9%, 일본: 14.3%)

〈표 2〉 한국과 일본 남성의 미혼율 추이: 1990~2015년

(단위: %)

	한국						일본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4	96.4	96.3	97.5	98.2	98.8	98.8	93.6	93.3	92.9	93.5	94.0	95.1
25-29	57.3	64.4	71.0	81.8	85.4	90.0	65.1	67.4	69.4	71.4	71.8	72.8
30-34	13.9	19.4	28.1	41.3	50.2	55.8	32.8	37.5	42.9	47.1	47.3	47.3
35-39	3.8	6.6	10.6	18.4	26.7	33.0	19.1	22.7	26.2	31.2	35.6	35.2
40-44	1.5	2.7	4.9	8.5	14.4	22.5	11.8	16.5	18.7	22.7	28.6	30.0
45-49	0.8	1.3	2.4	4.5	7.5	13.9	6.8	11.3	14.8	17.6	22.5	25.9

자료: 한국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2018」

- (여성 미혼율) 20대 초반은 전체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1990년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본보다 낮으며, 20대 후반의 경우는 2005년을 기점으로 한국 여성의 미혼율이 일본 여성을 넘어섰고, 30대 초반도 2015년에 일본을 넘어섰고 있음

〈표 3〉 한국과 일본 여성의 미혼율 추이: 1990~2015년

(단위: %)

	한국						일본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4	80.5	83.3	89.1	93.7	96.0	96.8	86.0	86.8	88.0	88.7	89.6	91.5
25-29	22.1	29.6	40.1	59.1	69.3	77.3	40.4	48.2	54.0	59.1	60.3	61.7
30-34	5.3	6.7	10.7	19.0	29.1	37.5	13.9	19.7	26.6	32.0	34.5	34.9
35-39	2.4	3.3	4.3	7.6	12.6	19.2	7.5	10.1	13.9	18.7	23.1	24.0
40-44	1.1	1.9	2.6	3.6	6.2	11.3	5.8	6.8	8.6	12.2	17.4	19.4
45-49	0.6	1.0	1.7	2.4	3.3	6.4	4.6	5.6	6.3	8.3	12.6	16.2

자료: 한국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2018」

○ 한국과 일본의 차이 중에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미혼율 증가의 한계점임

- 일본 남성 20대 후반의 미혼율은 2005년 71%에 도달한 이후 약간의 증가를 하지만 71~72% 부근에서 변동을 하고 있고, 30대 초반도 2005년에 47%에 도달한 이후 2015년까지 47% 선에서 변동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한국 남성의 20대 후반은 2000년에 일본의 미혼율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90.0%로 나타나 일본과의 차이는 19%로 나타나고, 30대 초반은 2010년에 일본보다 높아진 이후 2015년에는 한국이 55.8%로 일본과의 차이가 8.5%로 벌어지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일본 20대 후반 여성은 2005년 이후 59~61%에서 변동하고, 30대 초반은 2010년 34%대에서 변동하고 있음
- 20대 후반 여성의 한일 간 차이는 2015년에 15.6%, 30대 초반은 2.6%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020년 인구조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30대 후반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다시 말하면, 일본의 미혼율은 어느 한계점에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미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초혼연령

○ 1990년 당시의 한국 남성 초혼연령이 27.8세, 여성이 24.8세, 일본 남성이 28.4세, 여성이 25.9세로 한국보다 일본이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았음

- 1990년 당시에는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의 초혼연령의 차이가 10년 정도이고, 여성은 15~6년 차이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거듭하여 남성은 1997년(한국: 28.6세, 일본: 28.5세), 여성은 2010년(한국: 28.9세, 일본: 28.8세)에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음

- 이것은 곧 한국 남성의 만혼화 속도가 여성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초혼연령 경향에서도 미혼율에서 나타났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 남성은 2014년부터 31.1세로 초혼연령이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또한 29.4세에서 멈춰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반면, 한국 남성은 같은 기간 32.4세에서 32.8세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29.8세에서 30.1세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한일 간의 초혼연령 차이는 남성이 1.7세, 여성이 0.7세로 한국이 높은 상황임

〈표 4〉 한국과 일본의 초혼연령 추이: 1990~2016년

(단위: 세)

연도	한국		일본	
	남편	아내	남편	아내
1990	27.8	24.8	28.4	25.9
2000	29.3	26.5	28.8	27.0
2005	30.9	27.7	29.8	28.0
2010	31.8	28.9	30.5	28.8
2011	31.9	29.1	30.7	29.0
2012	32.1	29.4	30.8	29.2
2013	32.2	29.6	30.9	29.3
2014	32.4	29.8	31.1	29.4
2015	32.6	30.0	31.1	29.4
2016	32.8	30.1	31.1	29.4

자료: 한국 - 통계청, 「혼인통계」 각 연도, 日本-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2018」

□ 인구구조 변화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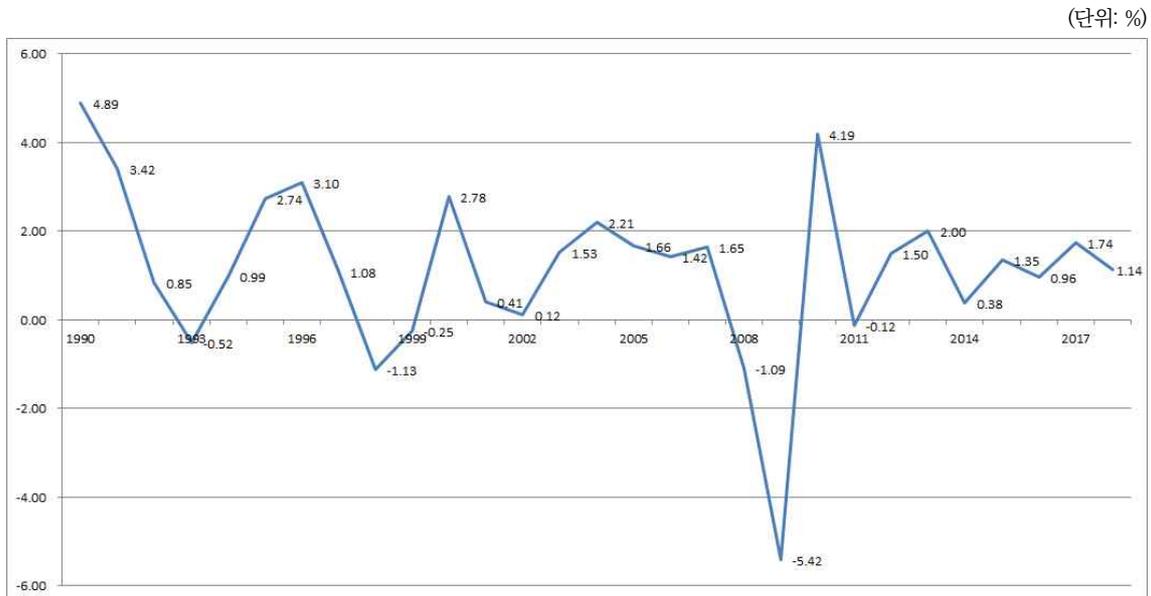
- 한국과 일본의 미혼율은 1990년 20대 후반 남성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약 10년 차이, 30대 초반은 약 15년 차이가 나고 있었으나, 20대 후반 남성은 2000년, 30대 초반은 2010년, 30대 후반은 2015년에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였고, 30대 후반 이상도 2020년 이후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미혼율 증가 속도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으며, 초혼 연령은 1990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일본과 10년 차이, 여성은 14~5년 차이가 있었으나, 남성은 1997년, 여성은 2010년에 일본의 초혼연령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일본 합계출산율이 1.4에서 안정적인 것은 미혼율 및 초혼연령 증가율의 둔화에 따라 출산이 지연되는 효과가 적어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경제지표 변화

□ 경제성장률

- 버블 경제가 붕괴되기 직전까지 일본 경제는 3~4%대의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1992년부터 0점대 및 마이너스 성장을 반복하였고,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하여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음
- 2000년대 들어서도 1~2%에서 변동하였으며, 2007년 후반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 사상 최저의 -5.42%의 성장률을 보였고 이후에도 1~2%에서 변동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2]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1990~2018년



주: 2018년은 추정치

자료: IMF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실업률

- 90년대 말까지 실업률의 산출방법이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MF 수준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은 최근 감소경향에 있긴 하나 아직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음
- 양국의 큰 차이점은 20대 실업률로서 한국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일본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3] 한국과 일본의 실업을 추이: 1990~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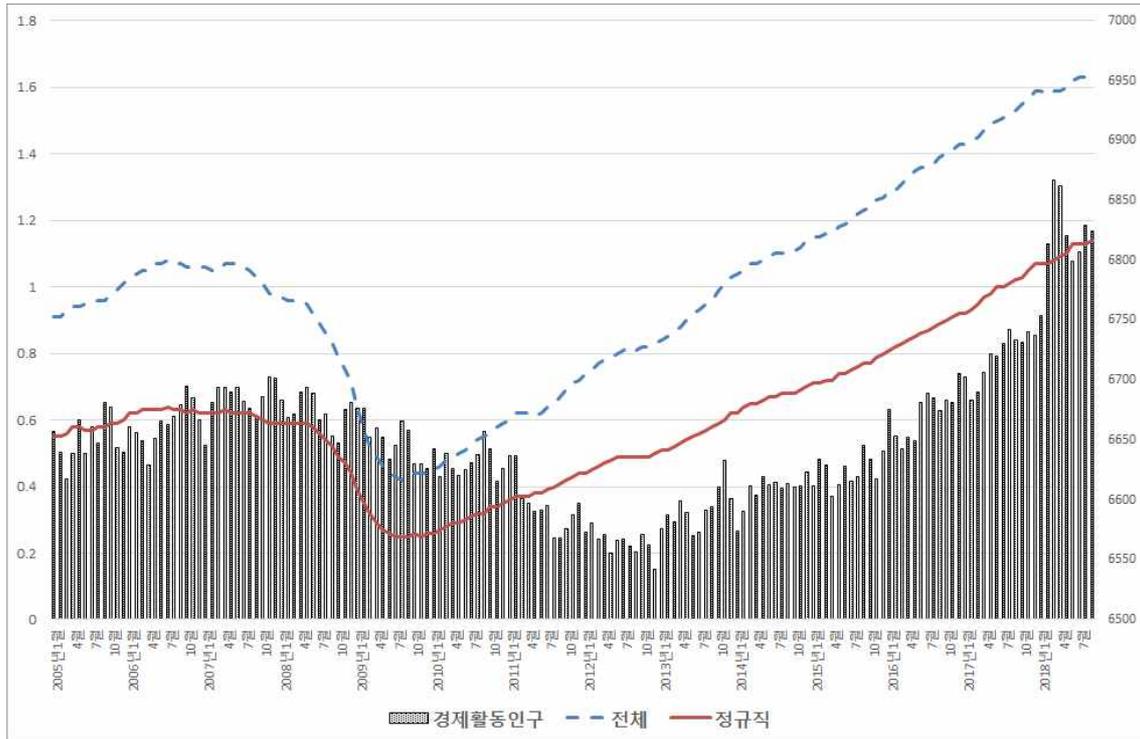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일본 - 総務省統計局「労働力調査」, 各年度

□ 일본의 경제활동인구와 유효구인배율

- (경제활동인구) 일본의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6,700만 명을 밑도는 수준이었고 2012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그러나 2013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즉, 생산연령인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중후반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그 후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였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아베노믹스는 2012년 12월에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4] 일본의 경제활동인구와 전체 유효구인배율: 2005년 1월~2018년 7월

(단위: 만 명,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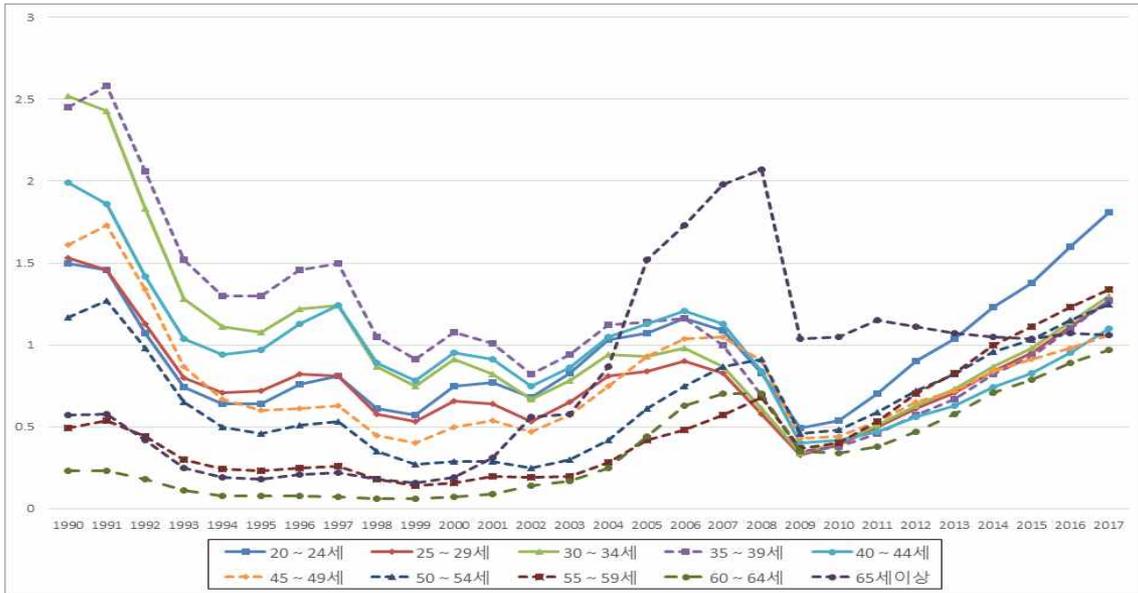
자료: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 各年度

○ (연령별 유효구인배율) 1990년대 초반 30~40대의 수치는 2배를 넘어서고 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부터는 65세 이상의 유효구인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함
- 반면, 20대 초반의 유효구인배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 연령별 유효구인배율 추이: 1990~2017년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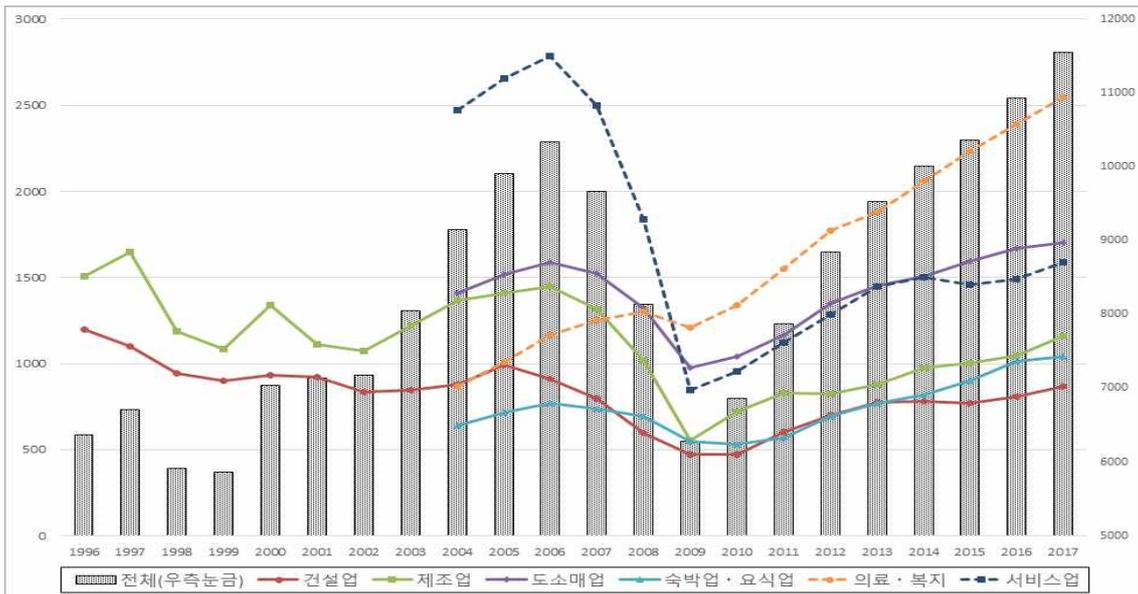


자료: 厚生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について」、各年度

- (업종별 신규 구인수) 서비스업이 2000년 중반까지 신규 구인수를 견인하고 있었으나, 금융 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이후 의료·복지의 신규 구인수가 급격하게 증가함
- 그 이외의 업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그림 6] 업종별 신규 구인수 추이: 1996~2017년

(단위: 천 명)



자료: 厚生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について」、各年度

3. 최근 경기회복 국면에 대한 내각부의 견해¹⁾

□ 노동시장관련 지표의 개선에 대한 견해

- 인구 감소·고령화가 잠재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고 있어 유효구인배율 및 실업률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음
 - 단, 최근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 영향이 대부분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취업확률의 증가와 이직확률의 감소로 특히 제조업의 이직확률이 안정되고 있는 것과 함께 고용흡수력이 큰 서비스업에서의 입직확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여성 및 고령자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총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단시간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당분간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가 일정 정도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해도, 젊은 층의 전직을 촉진시켜 노동자의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유능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4. 최근 일본의 인구구조와 경기회복 국면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

□ 일본의 인구 및 인구정책 전문가들의 의견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Keita Suga 박사; 게이오 대학, Tsuya Noriko 교수) 합계 출산율이 1.4에서 안정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만혼화 및 만산화²⁾ 속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그러나 아직 선부른 예단은 할 수 없으며 앞으로 2~3년의 동향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도쿄통신대학, Masanobu Masuda 교수)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201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이전까지는 보육정책이 곧 저출산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1) 内閣府 (2017) 「日本經濟2016-2017」

2) 출산을 늦게하는 현상을 지칭함.

- 즉, 실제 인구가 감소한 이후부터 저출산 대책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한 것
- 정책이라는 것은 소관 법령, 예산, 인력의 3가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법령만이 준비되어 있고,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여 정책이 더디게 시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주쿄대학, Matsuda Shigeki 교수, 오비린 대학, 배지혜 교수) 큐슈·중국 지방의 합계출산율이 타지역보다 높은 것이 출산율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임
 - 그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고용 상황이 좋은 것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구축임
 - 또한 지역적으로 고용 상황이 좋은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고용상황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Keita Suga 박사) 최근 일본의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인구구조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현재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주쿄대학, Matsuda Shigeki 교수) 청년 채용이 늘어나는 이유
 - 경기가 좋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으며, 경기가 좋아진 이유는 정부의 경제 정책(금리 및 기업투자)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의 연령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베이비붐(단카이) 세대가 대량 은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도쿄대학, Genda Yuji 교수) 청년 채용이 늘어난 것은 청년 니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이 이유라고 보임
 - 특히 서포트 스테이션의 성과가 매우 높아진 것이 니트 비율을 감소시킨 주된 이유로 생각됨
 - (도쿄통신대학, Masanobu Masuda 교수; 도쿄대학, Genda Yuji 교수) 2012년 12월 이후의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으로 65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고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임
 - 경제활동인구가 2012년 12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아베노믹스 시작과 법령 개정과의 착시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아베노믹스의 자체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됨

5. 최근 일본의 인구구조와 경기회복 국면에 대한 정리

□ 인구구조와 경제지표

- 최근 일본의 합계출산율의 안정적인 추이는 출산을 연기하는 추세가 완화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출생아수의 감소율도 한국보다 완만한 편이었음

○ 2012년 12월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유효구인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GDP 성장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임

- 즉, 경제성장율에 비하여 유효구인배율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 유효구인배율은 전 연령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20대 초반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업종 별로는 의료·복지업의 유효구인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인구 구조적으로 볼 때,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아베노믹스의 시작 시점(2012.12)과 거의 동시에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때, 아베노믹스의 긍정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면, 2012년을 전후하여 고령자고용안정법이 개정되어 고령자의 고용이 활발해진 것이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됨
- 물론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제로라고는 할 수 없으나, 고령자의 고용 증가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일본의 경기 회복은 고용 측면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인구구조에 의한 변화, 즉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보이게 된 것이라기 보다 고령자 고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용구조측면에서의 변화(특히 의료·복지 일자리 확대),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의해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더욱 크다고 생각해볼 수 있음.